

유럽, 고품질 한국섬유 수입 지속

쿼터 폐지에도 스포츠용 섬유·의류 수입 증가 ... 수입가 낮아질듯

유럽 소비자들의 환경과 품질 및 사회기준을 기대하는 소비성향에 따라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 한국산 섬유의 수입이 쿼터 폐지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KOTRA(사장 오영교)가 유럽의 섬유 수입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, EU의 섬유쿼터 폐지로 수입가격은 10-15% 인하되고 판매가는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며 수입량도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수입이 증가하나 일정기간 후에는 쿼터 폐지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유럽 소비자들의 품질과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품질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.

한국산 섬유제품은 특히 Polyester 직물과 산업용 섬유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한국 방문 기업의 22%가 Polyester 직물을, 14%가 산업용 섬유를 경쟁력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.

한국산 섬유가 인정받은 기술과 품질력을 경쟁성 확보로 잇기 위해 개선할 점으로는 <가격인하>가 43%로 가장 높았고 <소량주문 수용> 28%, 신제품 개발 등의 순으로 지적됐는데 유럽에 수입되는 섬유제품의 수입가격이 10-15% 인하될 것을 고려할 때 가격조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또 유럽 중견 수입업자들은 신규거래선 발굴 방법의 63% 정도를 전시회에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KOTRA 구주지역본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섬유기업들의 유럽시장 판매전략을 중고가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입가 인하 추세를 감안한 유럽 가격전략의 재검토, 신 거래선 개척을 위한 전시회 적극 참여, 유럽 수입업자들에게 국내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을 적극 홍보해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산 수입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. <한유진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8/27>